

AI Fuhr 박사, 전도서, 세션 5

© 2024 알 푸어(AI Fuhr)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전도서가 가장 잘 알려진 문제 중 하나는 죽음에 대한 코헬렛의 집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서에서 발견하는 이러한 죽음의 불가피성 모티프는 실제로 전도서에서 다소 무서운 그림을 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티프가 계속해서 등장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제가 언급했듯이 코헬렛은 죽음과 죽음의 불가피성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인생의 타락이라는 딜레마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이 여정을 떠맡고 있는 수평적 관점에서 볼 때 희망은 거의 없어 보인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인류가 타락했을 때부터 우리는 죽음이 실제로 그 타락에 대한 형벌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것은 인류 존재 전체에 스며드는 것이 된다. 즉,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무덤을 향한 길, 즉 궤적 위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코헬렛은 삶의 일시적인 존재의 덧없는 본질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며 무덤을 향해 나아가면서, 사람이 현명한 사람인지, 부유한 사람인지, 바보인지, 운명을 유혹하는지 아닌지, 모든 인류가 다 이룬다는 사실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같은 방향인 공동묘지를 향하고 있다. 이제 구약성서에서 죽음과 내세의 신학은 다소 모호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사람이 죽은 후의 존재에 대해 거의 아는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약성서 전반에 걸쳐 죽음은 두려워해야 할 일, 결코 기대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언급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사람이 죽을 때를 늦추고, 죽음의 시기를 늦추어 수명을 연장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서에서 우리는 죽음의 신학, 어쩌면 내세에 관한 신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것들은 우리가 신약에 도달할 때까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 특히 개인과 무덤 이후의 인류를 위한 종말론적 존재와 관련하여

말입니다. 전도서에서는 구약성서에서 무덤이나 내세 영역을 가리키는 단어인 스올(sheol)을 몇 번 발견합니다. 스올이라는 단어는 구약성서에 65번 정도 나옵니다.

전도서에서 스올이라는 단어가 항상 생각나는 곳은 전도서 9장 기쁨의 인생 후렴의 7절과 6절입니다. 전도서 9장 7절에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을 먹고 마시라 하십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라. 이제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일에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다. 즉, 코헬렛은 현재가 삶의 시간임을 매우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무덤, 그곳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다는 것. 항상 흰 옷을 입고 항상 기름을 머리에 바르라.

이 지옥의 모든 날 동안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인생을 즐기십시오. 나는 이 맥락에서 덧없음이 아마도 강조되고 있지만 hevelness 뒤에 있는 다른 의미 계열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해 아래서 네게 주신 이 모든 평신도 곧 네 평생이니라.

이것이 네 생명과 수고와 해 아래서 네 아말의 몫이니라. 네 손이 일을 찾으면 무엇이든지 온 힘을 다하여 행하라. 스올에는 이것을 번역한 것이니 네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느니라.

지혜는 지금 여기서 실천할 수 있지만 내세에서는 그러한 지혜를 실천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지혜는 이생에서 유익을 주기 위해 실행되어야 합니다. 지혜는 헤벨의 딜레마와 이에 수반되는 죽음의 필연성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구약성서에서 히브리어 스올(Sheol)은 일반적으로 무덤으로 번역되지만 이는 단순히 지하 6피트 이상의 것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스올은 우울한 곳, 피해야 할 곳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나는 KJV가 구약에서 스올(Sheol)이라는 단어를 약 30번 정도 번역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옥을 언급하는 것은 아니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곳이 반드시 적극적인 형벌과 심판을 받는 장소는 아니지만 구약에서 피해야 할 장소인 것 같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전도서에서 죽음은 박수를 보내거나 축하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종종 장례식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도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 축하를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이 타락한 세상과 타락한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일부입니다. 당연하지만 가능하다면 미뤄두어야 할 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지혜는 때이른 죽음을 피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코헬렛의 문제는 현명한 사람이 지혜가 제안하는 모든 일을 적시에 행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자신의 죽음의 날을 통제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해도 그가 자신의 지혜를 통해 결국 일어날 일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전도서에는 해아래 수평적 관점에서 볼 때 부활의 언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코헬렛은 그 시대의 현자, 왕, 부자, 억만장자들 모두가 먼지에서 먼지까지 동물들과 같은 곳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관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현자 코헬렛에게 끝없는 불안을 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혜의 적용을 통해 죽음의 불가피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는 죽음의 타이밍조차 막지 못할 수도 있다.

죽음은 개인의 능력이나 삶의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지위와 성취는 앞으로 일어날 피할 수 없는 죽음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반영하는 전도서 2장과 14절의 몇 구절을 보면, 지혜로운 자는 머리에 눈이 있고 미련한 자는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나는 같은 운명이 두 사람 모두에게 닥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다가 나는 마음 속으로 어리석은 자의 운명이 나에게도 닥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혜롭게 행동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코헬렛은 죽음이 불가피하게 다가오는 상황에서 지혜가 가져올 수 있는 궁극적인 성취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속으로 이것도 무겁다라고 말했어요.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은 오래 기억되지 않을 것이며, 영속적인 유산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둘 다 잊혀질 것이다.

바보처럼 현명한 사람도 죽어야 한다. 인류는 모두 무덤을 향하여 같은 궤적을 향하고 있습니다. 3장과 19절부터 22절까지에서 코헬렛은 거의 동일한 내용을 반영합니다.

그는 인간의 운명이 동물의 운명과 같다고 말합니다. 같은 운명이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코헬렛의 사고와 신학이 사후 존재나 의식이 없다는 생각으로 잘못 인도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전도서의 신학적 맥락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태양 아래의 관점에서 사물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가 반드시 계시적인 의미로 선포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시 역사에서 코헬렛의 시기에 있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인류에게 진리가 온전히 계시되는 것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코헬렛은 우리가 신약성서를 읽을 때 접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반드시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나는 실제로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이것에 대해 설명할 것입니다. Kohelet은 내세의 죽음에 관한 신학에 관한 한 한계를 뛰어 넘었습니다.

전도서에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구약성서의 어느 곳보다 죽음 이후에 어떤 종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암시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도서가 부활의 존재, 새 하늘과 새 땅, 천국과 지옥의 존재 또는 이와 유사한 어떤 것이 있을 것이라고 암시하지는 않지만, 전도서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은 흥미롭습니다. 판단과 계산의 시간인 현재의 존재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목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3장의 본문으로 돌아가면, 인간의 운명은 동물의 운명과 같습니다. 즉, 흠에서 흠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동일합니다. 같은 운명이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 다른 사람도 죽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삶에 적용할 수 없는 동물처럼 어리석은 존재라도 우리는 모두 같은 곳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그가 지적하고 있는 점입니다. 모두 같은 호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동물보다 우위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헤벨입니다. 다 같은 곳으로 가느니라 다 흠으로 말미암아 나왔고 다 흠으로 돌아가느니라.

5장 10절에서 코헬렛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부를 사랑하는 사람은 소득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사실인가요? 이것도 헤벨이다.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덧없고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세상에서 탐욕과 일종의 보물을 얻기 위한 과잉을 헤벨로 간주합니다. 물건이 늘어나면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들도 늘어납니다. 그게 얼마나 사실인가요? 그리고 그것이 소유자에게 눈을 즐겁게 하는 것 외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코헬렛은 단순히 보기 위해 물건을 모으는 것의 부조리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내 친척 중 한 사람이 생각나네요. 그는 노년기에 은행 명세서를 보곤 했습니다. 그에게는 일종의 안정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이들이 그에게 말하듯이, 아빠, 당신은 영원히 살지 못할 거예요. 당신은 그 자원 중 일부를 소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매달 들어올 때마다 은행 명세서를 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을 위해 이 모든 것을 모으고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풍부하여 잠을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큰 폐단을 보았으니 이는 해 아래서 소극적인 심판이요, 주인을 해하여 재산을 모았고, 재난으로 재산을 잃은 것이니라. 내 생각에 코헬렛은 이런 것들이 허술하다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아들이 생기면 그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그가 지속적인 유산을 연장할 수 없을지라도 유산을 줄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벌거벗고 모태에서 나와서 우리에게 옴을 생각하게 하고, 올다가 떠나느니라. 그는 자신의 노동에서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코헬렛은 현명한 사람, 부유한 사람, 큰 보물을 모으고 비축하는 사람, 위대한 일을 성취하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그 무엇도 무덤까지 가져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장과 2절에서 코헬렛은 이러한 사고방식을 이어가며 모두가 공통된 운명을 공유합니다.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악인, 깨끗한 자와 부정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

선한 사람이 그러하듯 죄인도 그러합니다. 맹세하는 자의 경우와 같이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자의 경우도 그러하니라. 이것이 해 아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악이니라.

다시 말하지만, 이러한 관찰에 대해 큰 불안이 있습니다. 같은 운명이 모든 사람을 덮칩니다. 이것은 죽음, 즉 일반 무덤이다.

더욱이 사람의 마음은 악으로 가득 차 있고 그 마음에는 사는 동안 미친 것이 있느니라. 그들은 궁극적으로 무덤까지 가져갈 수 없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 애쓰고 열망하며, 그 후에는 죽은 자들과 합류합니다. 살아 있는 자 중에 누구든지 소망이 있습니다.

코헬렛은 확실히 현재 가능성에 대한 신학과 현재에 자신을 적용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전히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개라도 죽은 사자보다 낫다.

다시 말하지만, 코헬렛은 고린도후서 5장과 12절에 나오는 심판의 씨앗에서 기대할 수 있는 보상에 대해 여기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그의 생각 범위 내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타락한 사고방식이나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고방식이 아니라 해 아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자가 이 세상에서 관찰한 내용에 적용하는 것은 단지 제한된 관점일 뿐입니다.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느니라. 그들에게는 미래의 보상이 없으며, 심지어 그들에 대한 기억조차 잊혀집니다.

다시 말하지만, 상황을 매우 명확하게 하기 위해 여기서 전도서나 우리의 현자 코헬렛이 여기서 죽음 이후의 소멸론을 어떤 형태로든 제안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여호와의 증인이 종종 전도서 3장과 전도서 9장과 5절의 본문을 증명하여 전도서가 절멸론을 가르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번은 여호와의 증인 워치타워 성서 책자 협회 대표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일단의 학생들을 왕국회관이 짓고 있는 특정 장소로 데리고 가서 그들이 이 특정 지역에서 여호와의 증인이 하는 일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파수대」 대표자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워치타워 성서 책자 협회의 우두머리 중 한 명이었습니다.

나는 전도서와 죽음에 관한 몇 가지 진술에 관해 우리가 대화를 나눈 것을 기억합니다. 내가 이 신사에게 전도서의 나머지 부분이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그리고 여기서 논점에 있는 코헬렛의 관점과 그의 제한된 관점에 대해 물었을 때, 다시는 타락한 관점이 아니라 이 신사는 전도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것은 Kohelet이 이러한 것들을 관찰하고 있는 가르침이나 관점, 그가 이러한 것들을 관찰하고 있는 렌즈, 또는 그의 여행, Hebel 세계에서 Vitron을 찾기 위한 그의 탐구였습니다. 그는 단지 이러한 것들을 사후에 어떤 종류의 의식적인 존재도 없을 것이라는 증거 텍스트로 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그것이 전도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해 아래서 사물을 관찰하여 살아 있는 것도 좋고 무덤에 있는 것도 좋지 못하니 지혜가 아무 것도 가져갈 수 없음을 알았을 뿐입니다. 사실, 지혜는 죽음의 필연성조차 막을 수 없습니다.

개가 죽는 것처럼 당신도 죽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Kohelet의 사고방식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제 개인의 능력과 삶의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생각을 넘어서, 죽음의 불가피성에 대한 이러한 묵상에 반영된 두 번째 생각은 사람의 죽음의 시기는 궁극적으로 신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계획을 세울 수 없으며 실제로 그 계획을 실현하여 자신의 죽음을 더 유익하고 유리한 시기에 맞출 수 없습니다. 전도서 3장과 2절에서 많은 것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을 조사해 보면, 시간에 관한 시에서 하나님의 결정론이 고려되는 것처럼 보이는 지점이 있다면 아마도 이분법적 짝짓기에 있을 것입니다. 태어날 때와 죽을 때 사이. 또한 7장과 14절부터 18절까지에서는 사람이 자신의 죽음의 시기를 통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가장 중요하고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좋을 때에는 기뻐하고, 나쁠 때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은 이것과 다른 것을 만드셨으므로 인간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 지나치게 사악하여 운명을 유혹하지 말라는 훈계가 나온다.

즉, 하나님은 결국 어느 시점에 당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왜 시간이 되기 전에 죽나요? 하나님은 당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당신을 없애실 수도 있습니다. 8장 7절에는 인간이 자신의 죽음의 시기를 효과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매우 분명한 진술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장래 일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 장래 일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바람을 제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듯이, 죽음의 날을 제어할 사람도 없습니다. 자신의 죽음의 시기를 결정하는 데 인간의 무능력, 심지어 지혜의 무능력에 대한 매우 분명한 진술입니다. 8장 12절과 13절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악인은 백 번 죄를 범하여도 장수한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화를 면하지 못하고 그들의 날이 다시는 그림자 같이 장구치 못하리로다

거기에는 어느 정도 확신이 언급되어 있지만 궁극적으로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다가 9장 11절과 12절에서 나는 해 아래서 또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경주는 빠른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전쟁은 강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음식은 지혜로운 자에게 주어지지 않으며, 부는 명석한 자에게 주어지지 않으며, 유식한 자에게 은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다시 말하지만, 죽음의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더욱이, 자신의 죽음의 날이 암시되는 자신의 시간이 언제 올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고기가 잔인한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가미에 걸리듯이, 인간도 예기치 않게 닥치는 악한 시대에 갇히게 됩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일상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인생의 특정한 날이나 특정한 기간을 위해 훌륭한 계획을 세울 수도 있지만, 그 일의 결과는 확실히 보장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현명하게 계획을 세울지라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얼마나 많은 방법으로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당신에게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죽을 날을 정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성찰에서 인간의 무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히 발견합니다. 또한 우리는 전도서에서 죽음이 개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될 수 있거나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추가하는 것은 전도서가 반드시 우울하거나 냉소적이거나 부정적인 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성 중 일부는 전도서에 부정적인 분위기를 추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4장 1-3절에서 코헬렛이 해 아래서의 삶을 관찰하면서 생각한 것 중 하나는 내가 다시 보니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환난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억눌린 자의 눈물을 보았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권력은 압제자들의 편에 있었고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었습니다. 수평적인 세상에서 우리는 때때로 엄청난 불의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날 억압과 부패가 일상적인 북한이나 세계의 장소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세대, 다음 세대가 이것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부패한 사회에서 태어나 부패한 사회에서 죽으며 큰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 아무 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선지자들,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불의와 불의와 강포가 하나님이며 보지 못하시나이까?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 때에 네가 믿지 못하는 일을 행하리라 내가 네 상상 이상으로 일하리라 하였느니라. 나에겐 계획이 있다.

그러나 코헬렛은 하박국 선지자에게서 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대화를 반드시 하나님과 나눈 것은 아니었습니다. 코헬렛은 이 천상 세계에는 불의가 일어나고 큰 고통이 있으며 하나님은 위로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 간단히 관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론 코헬렛에게 약간의 짜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이미 죽은 죽은 자가 아직 살아 있는 산 자보다 더 행복하다고 선언합니다. 3장에서 욥이 자신의 생일을 슬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사산아로 사는 것이 나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코헬렛은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둘보다 아직 태어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나으니라. 즉, 코헬렛은 어떤 형태의 기쁨 없이 사는 것, 어떤 형태의 만족 없이 사는 것은 살 수 없는 방식으로 상황을 구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현명한 사람으로서 타락한 세상에서 사는 이 삶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없고 오히려 고통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삶이 있다는 것을 보면 현명한 사람은 확실히 상당한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질을 측정하는 호일입니다. 이에 더해, 죽음의 불가피성은 삶의 즐거움을 향한 상당한 동기이자 자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전도서의 두드러진 모티브로서 삶의 즐거움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인생을 즐기라는 후렴구가 책 전체에 걸쳐 일곱 번 반복됩니다. 이 내용은 2장 초반부터 시작하여 11장 끝까지 이어집니다.

전도서의 대화에도 분명히 스며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불가피성에 비추어 볼 때, 죽음은 현재의 경험을 향한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현명한 사람은 황소의 뿔을 잡고 인생을 최대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심지어 타락한 인간, 심지어 심하게 타락한 세상의 타락한 인류에게 주시는 그러한 기회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따라서 어쨌든 우리는 삶의 즐거움과 관련하여 죽음의 불가피성에 대한 다양한 언급을 발견합니다. 2장과 24절에서 우리는 이전에 읽은 많은 구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요점을 강조하기 위해 나는 먹고 마시며 자기 일에서 만족을 찾는 것보다 사람이 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봅니다.

내가 보기에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누가 먹으며 즐거움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행복을 주시지만, 죄인에게는 재물을 모으고 쌓는 일을 맡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넘겨주십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바람을 쫓는 헤벨이다. 다음 강의에서 우리 각자가 조사하고 반성하게 될 즐거운 삶의 후렴 전체에서 우리는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죽음의 불가피성을 암시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사실, 현재의 활동과 경험에 대한 자극과 동기로서 죽음의 불가피성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는 아마도 9장과 7-10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시라. 이는 이제 하나님이 네 하는 일을 기뻐하심이니라. 항상 흰 옷을 입고 항상 기름을 머리에 바르라.

즉, 현재의 삶의 경험에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해 아래서 네게 주신 이 평안의 모든 날 동안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지내라. 이것이 네 몫이니라. 나는 헬렉이라는 단어를 할당으로 번역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나는 그것을 매우 긍정적인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그것을 탐구할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에서, 그리고 힘든 노동에서 당신에게 할당된 것이며,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태양 아래 헤벨 세계에서 일하는 것은 당신의 아말이기 때문입니다. 네 손이 일을 찾으면 무엇이든지 온 힘을 다하여 행하라.

네가 가는 음부 스올에는 네가 가는 곳인 것을 의심하지 말라 네가 그 궤도 안에 있을 것임이니라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느니라.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Kohelet이 내일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기대, 결국 우리가 이러한 활동 중 어느 것도 실행되지 않는 곳으로 향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에 기초하여 현명한 사람에게 활동을 촉구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11장에서 그런 종류의 동기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청년이여 네가 젊을 때에 행복하라(9절). 청년의 날에 네 마음을 기쁘게 하라. 네 마음의 길과 네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시리라 생각하라.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강의에서 심판의 측면을 탐구할 것이고, 이번 강의에서도 그것에 대해 조금 더 다루겠습니다.

그러므로 네 마음의 근심을 내버리고 네 몸의 괴로움을 내버리라 청춘과 활력은 헤벨이니 지나가느니라. 젊었을 때, 환난의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노화 과정을 묘사하는 비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최근 우리가 이 장면을 녹화하고 있을 때 매우 유명한 인물인 무하마드 알리의 죽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언론과 텔레비전에서 찬사를 받는 동안 나는 1960년대와 70년대 헤비급 복싱의 황금기였던 그의 오래된 복싱 경기 중 일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젊고 활기 넘치는 무하마드 알리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이 사람은 엄청난 힘과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로 자신을 최고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복싱 세계에서는 그는 . 내 말은, 그는 젊음과 활력의 정점이었습니다. 내 말은, 그는 인류가 건강하고 젊고 활기찬 개인에게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상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 후, 40대 초반에 그는 파킨슨병이라는 끔찍한 질병을 진단받고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7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마지막 해로 이어지는 그의 사진을 보면 그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의 이전 모습의 단순한 그림자일 뿐입니다. 삶의 무게에 대한 슬픈 간증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당신이 누구이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지어 영적으로 우리 모두는 저주 아래 있는 이 육체적 영역에 있으며, 위대한 것을 향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헬렛은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숙고합니다. 12장에서 당신은 노화 과정에 관해 현자가 받은 이미지를 볼 수 있으며, 그 메시지는 할 수 있을 때 인생을 즐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냉정하게 살아가라는 것 같습니다. 현명한 사람의 사과의 최전선.

그리고 이는 삶의 즐거움을 촉진해야 하며, 삶의 절제와 하느님을 기억하도록 촉진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미래의 강의에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에 대한 많은 언급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미래의 판단. 예를 들어 12장에서는 명령, 즉 젊었을 때의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명령이 현재의 동기와 매우 흡사합니다. 그러나 책의 마지막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보면 Kohelet과 현명한 사람이 인생에서 절주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형태의 미래 판단에 대한 기대입니다.

13절 이제 다 들었으니 일의 결론은 이러하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전부요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

숨겨진 모든 것에 관한 이 진술은 비록 베일에 싸여 있고 세부 사항이 전혀 없더라도 우리의 현자 코헬렛이 사후 심판에 대해 갖고 있는 어떤 기대를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즉, 현재 시제에서는 상황이 반드시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미래 시제에서 최후의 심판 날에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로잡으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선악 간에 모든 행위를 심판하실 것입니까? 죽음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어떤 형태로든 미래의 심판에 대한 기대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점은 3장 17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제가 시간에 맞춰 시를 다루었는데, 제가 제안하는 부분은 3장 1절에서 시작해서 3장으로 끝나는 부분입니다. 17절. 천하 모든 일에 때가 있고 천하 모든 일이 이를 때가 있나니 1절은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다 심판하시리니 때가 이르리라 는 말로 끝을 맺는 것 같으니라. 모든 활동에 대한 시간과 모든 행위에 대한 시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주관하시는 모든 일, 그분이 때를 결정하시는 곳, 실제로 적합한 때에 건축하신 곳, 사건이 발생하도록 주기적 사건을 제공하시는 곳, 사람이 사물의 타이밍에 지혜를 적용할 수 있는 곳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때의 합당함을 알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경험에서는 때때로 하나님의 심판 시기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헬렛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일을 바로잡고 잘못을 바로잡으시고 인간이 자신이 행한 행위에 대해 응답할 때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결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승에서도 이런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가려져 있지만 코헬렛의 죽음과 죽음의 불가피성에 대한 신학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